



5 화순 파프리카 재배 문형운씨

외국 전문가 컨설팅 받고 최신 농법 접목



문형운 화순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 대표가 전통 레일카를 이용해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착색 단고추'로 불리는 파프리카는 비타민C 등이 풍부한 웰빙 식품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는 유가인상과 원자재 값 상승, 연화강세로 파프리카 농가에는 어느 해보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자리한 비닐 하우스 11동(7천270㎡)에서 10년째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문형운(50)씨.
광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문씨는 지난 93년 귀농해 토마토를 재배하다 1999년 처음으로 파프리카를 시도했다가 태풍 '율가'로 인해 포기하고 이듬해 다시 도전했다. 특히 2003년에는 하루 460mm

엔고에 영농비 올라 작년 최악의 한 해
年조수익 3억여원중 1억 이상 재투자
난방비 절감이 성과... '지열 난방' 모색

를 피하는 태풍 '매미'의 강타로 모종은 물론 온풍기, 양액기계 등이 모두 물에 잠겨 버리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40%가 경총 뛰어 버린 면세율을 위시해 양액, 종자 값 상승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자연재해 이상의 이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 지난해 재배여건은 '최악' 파프리카에 갈슘·철분 등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9가지 성분의 양액(養液)은 평균 280%가 상승했으며,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야 하는 씨앗은 개당 430원에서 600원으로 40%가 뛰었다. 게다가 식물생장 필수요소여서 인위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이산화탄소는 70%가 오른데다 지난해 11월

계부터는 아예 공급이 끊겨 파프리카 생산량이 40%가량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한화 100원당 1천 엔까지 떨어지는 연화강세로 같은 양을 일본에 수출하고도 소득이 반 토막나기도 했다.
화순 도곡면에서는 현재 20 농가가 4만6천평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해 전체 생산량의 45%인 1천800t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농가들은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을 결성해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
하수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생산성 향상 위해 부단한 노력=문씨의 연간 조수익은 2억5천만원~3억원. 선진 농법을 따라 잡기 위해 매년 1억원 이상이 재투자된다.
문씨는 경영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경유보일러 대신 '지열(地熱) 히트 펌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 150m의 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세율을 쓰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프리카의 적정 재배온도는 23~24℃로 야간에도 21℃를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10월에서 5월까지는 난방이 필수적이다.
또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기존 하우스 뼈대를 잘라내고 1.5m를 높였으며 비닐 하우스 천장에는 보온 커튼(알루미늄 스크린)을 설치해 보온 효과를 높였다.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헨드폰을 이용해 천장의 일부를 열고 닫는 자동관제어 시스템도 갖췄다.
문씨는 “기존 비닐하우스 재배 시스템으로는 평당 40kg을 수확하는데 '신개념 하우스'를 도입하면 60kg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다”며 “정부에서 'FTA자금'을 이용해 평당 50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신개념 하우스'를 파프리카 재배농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프리카 재배농민이자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 대표로서 새해소망에 대해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 회원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착색 단고추' 파프리카

색상 다양 모든 요리에 쓰여
비타민C 풍부 미용식 인기

남미가 원산지인 파프리카(PAPRIKA)는 우리말로 '착색단고추', 영어로 'Sweet Pepper', 'Bell pepper'로 부른다.
일반 피망보다 2~3배크고 색상은 빨강·노랑·오렌지·녹색 등 다양하며 단맛이 많고 아삭아삭하게 씹힌다.
농촌진흥청의 100g 당 비타민C 함량조사결과 딸기 99mg, 시금치 66mg, 귤 39mg에 비해, 파프리카에는 167mg이나 들어있다. 샐러드 등 생식용과 주스, 튀김, 볶음 요리 등 한식·양식·일식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웰빙 바람으로 국내에서도 소비가 늘고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6년 작물별 소득자료에 따르면 10a(300평) 당 조수입은 3천187만원이며 경영비가 2천400여만원에 달해 소득율은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방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설요이(촉성) 52.2%, 시설 방울토마토 44.7%, 시설참외 65.9% 등과 비교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4년부터 항공기 기내식용으로 제주도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 강진 등 46ha(전국 면적의 22%)에서 연간 3천954t을 생산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It features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nd images of hearing aids.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e will help you get rid of hearing loss). Contact numbers: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restaurant. It features a large pink flower logo and text: '봄/선/동' (Spring/Summer/Autumn), '아이엘리시아'. It lists various menu items and services like '음식민간예' (Food Folklore). Contact number: 062) 671-1199.

Advertisement for '광주원광신협' (Gwangju Wonkwang Shinhyeop) financial services. It features a man in a suit and text: '사업자 2,000만원까지 대출' (Loan up to 20 million for business), '신협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Shinhyeop tax-exempt benefits expanded from 20 million to 30 million). A yellow sticker says '60'.